

# “민주주의 위기·기회 동시에 보여준 사례”

### 姜시장, 5·18외곡·평해 게임 ‘그날의 광주’ 제보·삭제 언급 “尹대통령, 임기 중 5월 정신 헌법전문 수록 선언을” 요청

강기정 광주시장은 7일 “로블록스의 게임 ‘그날의 광주’ 제보·삭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관련기사 6면  
강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사회 곳곳에서 극단주의가 등장해 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등장한 극단주의는 때로는 정당의 이름으로, 때로는 종교의 이름으로 평범한 외양으로 다가와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그날의 광주 사례

도 그렇다. 5·18에 대한 외곡과 폄해를 게임이라는 친숙한 형식에 담아 수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거부감 없이 빠르게 퍼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시장은 “이미 누적 1만5천명이 게임을 통해 선을 넘는 경험을 했고 5·18 외곡과 폄해에 익숙해지기도 했다”며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게임 내용에 문제 의식을 갖고 분명한 거부와 반대의 뜻을 밝힌 평범하고 건강한 초등학교 시민

이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산 초등학교 같은) 건강한 시민을 더욱 많이 길러내기 위한 5·18 관련 교육 체계를 잘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고 궁극적으로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담는 것이 그 시작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논란으로 삭제된 로블록스 게임 ‘그날의 광주’를 처음 제보한 부산의 한 초등학교 생을 오는 13일 초청해 칭찬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로 했다.  
이 학생은 ‘그날의 광주’를 방송사에 제보해 공론화의 실마리를 제공했으며 로블록스는 사과문을 내고 게임을 삭

제했다.  
이와 함께 강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기 중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요청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44주년 5·18 기념식에 오시거든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는 개헌을 임기 중에 반드시 하겠다고 선언해 주는 것이 5·18 외곡·폄해가 반복되지 않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전문 내용 중 5·18 민주화운동 정신 또는 이념 등 문구를 넣는 기본적인 안, 부마항쟁, 6·10 민주항쟁이 필요할 경우 병렬로 같이 수록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구상하고 있다. /박재경 기자

## 尹대통령, 민정수석에 김주현 임명

### “민심 청취 가능 취약고심 끝복원”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은 “각 정책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민의 불편함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서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사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또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 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하고 “2021년 7월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며 “그 기초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또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뺐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덧붙였다.

김수석은 수사 정보의 수집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정보내용 등은 이미 공직기강이나 법률비서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다”며 “민정수석실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의 차차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김수석은 2년 만에 부활한 민정수석 자리에 처음 기용돼 책임이 막중할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구도가 유지되는 데다, 야권이 각종 특검 등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민정수석실의 역할에 정치권이 시선이 쏠린 상태다. /김진수 기자

## 광주천 수목 ‘해충 방제’ 돌입 市·자치구·광주환경공단 협업

광주시는 7일 “5개 자치구, 광주환경공단과 협력해 광주천의 수목 해충(미국흰불나방 등) 발생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수목 방제 작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광주천 두물머리와 양동복개사가 구간을 중심으로 시민의 이용이 적은 시간대에 방제 차량을 이용해 친환경 약제를 살포하는 1차 방제 활동을 이날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방제 작업 실시 해충 발생과 수목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오는 7월 중 2차 방제 작업을 통해 적극적인 광주천 이용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올해 기후변화로 인해 미국흰불나방 등 해충 개체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방제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자치구는 친환경 방제 약품을 지원하고 공단은 방제를 위한 약제살포 작업 시행을 시행하는 등 광주천 수목 병충해 피해예방에 함께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일근 물관리정책과장은 “광주천은 다수의 광주시민이 여가활동을 하는 주요 하천으로 시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간 협업을 통해 미국흰불나방 등 해충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목 방제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재경 기자



7일 도청 서재발실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청렴윤리경영회의’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 등 간부직원들이 청렴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전남도, 청렴 조직문화 구축 ‘쟁걸음’

### 청렴윤리경영회의…반부패·청렴도 향상 대책 공유

전남도는 청렴 활동 추진 원동력을 확보하고 부패 취약분야 개선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7일 도청 서재발실에서 2024년 제1차 청렴윤리경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및 간부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해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하고 반부패 청렴 의지와 청렴 메시지를 담은 ‘청렴실천다짐’ 선포식을 진행했다. 특히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공유한 뒤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부패 취약분야 개선 방안 등

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전남도 청렴윤리경영 회의체는 전남 지사를 필두로 실·국장 등 고위직이 참여하는 청렴 추진체다. 지난해 7월 발족해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전남도는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고위직 주도의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 ▲내부 제갈도 향상을 위한 소통·공감 조직문화 구축 ▲맞춤형 청렴교육 시행 ▲각종 비리 및 부패

행위 근절을 위한 공익신고 환경 조성 ▲부패 취약분야 집중 관리 ▲청렴시책 추진의 공감대 형성 및 신뢰성 확보 등 4개 분야 46개 청렴 시책을 추진, 도민이 신뢰하는 전남도를 실현하고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재도약할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청렴도 향상에 있어 불합리한 관행 문화를 개선하고 소통·공감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간부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언제나 깨끗한 공직문화가 정착되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김재정 기자

## 전남도,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 내달 21일까지 접수…제품 가격의 80-90% 혜택

전남도는 7일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올해 정보통신 보조기기 400여대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장애인에게 고가인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366대를 보급했다.

보급 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둔 등록 장애인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조기기 가격의 80%,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90%까지 보조한다.

보급 품목은 모두 143종으로 ▲시각 장애인을 위한 독서확대기·점자정보

단말기 등 72종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독서보조기·특수마우스 23종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기·음성응답기·의사소통보조기기 등 48종이다.

신청 기간은 6월21일까지다. 지원 신청은 구비 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지 시·군 정보화부서에 우편·방문 접수하거나 정보통신 보조기기 누리집(www.a4u.or.kr)에서 할 수 있다.

제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이나, 오는 6월17-18일 전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나주 소재)에서 개최되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체험 전시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정 기자

## 광주시,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지원

### 1대당 최대 4천322만원

광주시는 7일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배출 저감을 위해 올해 12억원을 투입해 총 56대의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저공해 조치는 엔진 교체, 전동화 개조,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것으로 이중 전동화 개조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엔진 교체는 지게차·굴착기·로더·롤러를 대상으로 대당 98~1천999만원, 전동화 개조는 지게차를 대상으로 대당 3천226~4천322여만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은 덤프트럭을 대상으로 대당 622여만원을 지원한다. /박재경 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렸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정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돈** 받아 드립니다

산수동 대로변 코너 대지990㎡ 고급레스토랑  
전시장, 외식전문빌딩 급매3.3당 500만원(면적추가가능)

=====

금남로 원각사인접 최고요지 신축7년차 대지980㎡  
8층건물2,200㎡ 급매49억8,000(보1억7,000월2,370)

=====

화순 도곡면 원화리 대로변 호화상권 계획관리  
6,200㎡ 도로160미터접 전시장, 음식점등 다용도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회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컴퓨터, FAX,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저(토너/드럼), 카트리지, 각종 잉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판매, 임대, A/S

**T.375-5880**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ろ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개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